

농어촌공사 합천지사, 청년농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

윤 김상준기자 | 승인 2026.03.19 18:21 | 10면

“청년농 의견수렴·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”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지난 18일 합천지사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 /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(지사장 이주헌)는 지난 18일 합천지사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. 또한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.

합천지사는 농지은행의 '맞춤형농지지원사업' 및 '농지임대수탁사업'을 통해 지난해 82농가에 49.1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 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한편 이주헌 지사장은 "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 김상준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상준기자